

제4권 교회·성례·국가

4권 1편 신자의 어머니, 참된 교회

제4권 제1장 1-29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하) · 전체 61편 중 49편

?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나?

 흐름 한눈에

3권에서 칼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4권은 그 믿음을 낳고 키우는 '바깥의 도움'을 다루며, 첫 편에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른다(1-4절). 하나님은 사람 목사를 통해 가르치시기로 정하셨다(5-6절). 칼빈은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우리가 함께 사는 보이는 교회를 나누고, 보이는 교회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는 두 표지를 제시한다(7-9절). 이 표지가 있으면 도덕과 교리에 결점이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선지자들, 예수님의 예로 증명한다(10-19절). 교회의 거룩함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자라 가는 중이므로 교회 안에는 평생 이어지는 죄 사함이 있다(20-22절). 마지막으로 세례 뒤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구약, 신약, 고대 교회의 예로 반박한다(23-29절).

 절별 정리

신자의 어머니인 거룩한 공교회. 1-4

 1. 교회의 필연성

3권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를 세워 권위를 주셨고, 특히 성례를 제정해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아직 몸을 입고 사는 존재라서 천사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 길을 내신 것이다. 칼빈은 4권의 순서를 교회(정치·질서·권한), 성례, 국가 질서로 예고하고, 교황 교회의 부패를 함께 경계하겠다고 밝힌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도 마찬가지다.

1. 믿음은 바깥의 도움으로 생기고 자란다
2. 그 도움은 교회, 목사·교사, 성례다
3.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신 방식이다
4. 4권의 순서: 교회 → 성례 → 국가
5.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에베소서 4:11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워 가르치게 하셨다는 근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가복음 10:9

하나님이 묶으신 것(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을 사람이 떼면 안 된다는 비유적 적용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26

신약 신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다. 그리스도 이후에도 교회는 어머니라는 근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2. 가시적 교회와 보편 교회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만 가리키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을 포함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까닭은 누가 하나님의 양인지 우리 눈으로 가려낼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회 안에(in) 믿는다'보다 '교회를 믿는다'가 정확하다고 본다. 니케아 신경 등에 'in'을 붙인 예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옛 사도신경 해설자는 'in' 없는 형태를 지지했다. 'in'은 마음을 맡기고 신뢰하는 대상, 곧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므로 교회·죄 사함·부활에 붙이면 어색하다. 다만 칼빈은 말다툼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이 조항의 핵심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택하심이므로 누가 교회인지 정확히 아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 있어야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시므로 교회도 하나뿐이다. 그래서 '공교회', 곧 보편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의 칠천 명처럼 교회를 숨겨서 지키신다.

1. 신경의 '교회'에는 모든 택자가 포함된다
2. '교회 안에'보다 '교회를' 믿는다가 정확하다
3.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택하심이다
4. 그리스도가 하나이시니 교회도 하나다
5. 황폐한 때에도 교회는 숨겨져 보존된다

디모데후서 2:19

자기 백성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1:13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으니 교회도 둘·셋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서 1:22-23

택자들이 한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²²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²³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로마서 12:5 · 고린도전서 10:17 · 고린도전서 12:12 · 고린도전서 12:27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다

로마서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16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란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5: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열왕기상 19:18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 숨겨진 교회의 보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3. 교회의 통일성

사도신경의 이 조항은 보이는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화목하고,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양 떼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중요하다. 이 구절은 고대 문헌에 대개 빠져 있지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를 잘 보여 준다. 이것이 은사의 다양함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사유재산을 없애자는 뜻도 아니다. 칼빈은 재산 소유가 분명해야 사회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인 공동체는 분명히 인정한다. 내가 교회의 지체임을 믿으면 구원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선다. 칼빈은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 든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견고하심과의 연결, 교회의 품에 있는 한 진리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시온에 대한 약속이다. 교회의 하나 됨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택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1. '성도의 교통'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2. 은사의 다양성과 사유재산은 그대로 인정한다

4. 다른 지체가 받은 복이 곧 나의 위로다

5. 하나 됨은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든다

사도행전 4:32

한마음 한뜻인 신자 공동체의 모델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에베소서 4:4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교통의 근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바댜 1:17 · 요엘 2:32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다. 교회 안의 보호 약속

오바댜 1:17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요엘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편 46:5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 신자의 어머니인 가시적 교회



이제 칼빈은 보이는 교회로 초점을 옮긴다. '어머니'라는 호칭 하나만 보아도 교회를 아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젖을 먹여 기르듯, 교회는 우리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돌보고 이끈다. 이것 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약해서 평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으로 남아야 한다. 이사야와 요엘이 말하듯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이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자는 하나님 백성의 명부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고, 반대로 돌이킨 자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이름이 기록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특별한 증거는 그분의 백성 안에만 있으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이다.

1. 교회는 낳고 기르고 끝까지 지키는 어머니
2. 평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이다
3. 어머니의 품 밖에는 죄 사함의 소망이 없다
4. 하나님 백성의 명부에 이름이 오른다
5. 교회를 떠나는 것은 치명적이다

마태복음 22:30

부활 때 천사처럼 될 때까지 교회의 돌봄이 이어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사야 37:32 · 요엘 2:32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 교회 밖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근거

이사야 37: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요엘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에스겔 12: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 56:5 · 시편 87:6

돌이킨 자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기록된다

이사야 56: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시편 87: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시편 106:4-5

주의 백성이 받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구하는 기도. 복은 백성 안에 있다

⁴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⁵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 5-6

5. 교회를 통한 교육, 그 가치와 의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자라게 하시기로 정하셨고, 그 방법으로 목사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는 영의 양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복음 선포 안에서 드러난다. 구약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쉴 곳'과 '거처'라고 부른 것도, 연약한 사람이 맡은 말씀 사역에 존귀를 더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점과 주술을 금하시는 대신 선지자를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가 놀라 달아나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부드럽게 이끄신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보잘것없다고 말씀까지 낮춰 보는 것은 배은망덕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 수단에 매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평범한 가르침의 방식에 매어 두셨다.

반대편에는 '광신자들'이 있다. 교만이나 반감 때문에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충분하다며 공적 예배와 설교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칼빈은 그들이 성도를 묶는 끈을 끊고 가르침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교회를 갈라 양 떼를 늑대에게 던지는 배도자들은 더 나쁘다. 다윗이 성막에서 쫓겨난 일을 미칠 듯 슬퍼한 것은 공적 예배보다 큰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르면서도 '발등상'이라고도 부른 것은 미신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운 이방 신전, 그리고 그 길로 기운 유대인들은 예배를 더럽혔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신을 벽 안에 가둔다는 것이 어리석다며 그리스 신전들을 불태웠다고 한다. 칼빈은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지상의 성전은 마차처럼 우리를 하늘 영광으로 들어 올리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1. 하나님은 즉시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키우신다
2. 믿음은 들음에서, 설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
3. 사람을 쓰심: 순종의 시험이자 배려
4. 혼자 성경 읽기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끈을 끊는다
5. 공적 예배는 신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

에베소서 4:10-13

그리스도가 사역자를 주셔서 교회를 장성하게 하신다. 이 절의 중심 근거

¹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¹¹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¹²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¹³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이 대대로 교회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양식을 거부하면 굶주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로마서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설교가 믿음의 통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16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나 복음 선포로 드러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시편 132:14 · 이사야 57:15 · 시편 80:1

성전을 하나님의 쉼터·거처로 부른 이름. 말씀 사역의 존귀

시편 132:14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으로다

이사야 57: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시편 80:1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고린도후서 4:7

질그릇 속의 보배. 언약한 사람을 통한 사역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8:10-11 · 레위기 19:31

점·주술·강신술 금지

신명기 18:10-11 ¹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¹¹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레위기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15

금지한 대신 선지자를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라기 2:7

제사장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입술이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시편 105:4 · 시편 27:8 · 시편 100:2 · 역대상 16:11 · 역대하 7:14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가르침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이다

시편 105:4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27: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00: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린도후서 4:6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 속에서 드러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4:12

교회는 외적 설교로 세워진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24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가르침이 없으면 장소는 쓸모없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시편 84:2-3

성막에서 쫓겨난 다윗의 갈망. 공적 예배의 가치

²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³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42:2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까

시편 132:7 · 시편 99:5 · 역대상 28:2

성전을 '발등상'으로도 불러 미신을 막는다

시편 132:7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99: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역대상 28:2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에베소서 4:13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행전 7:48 · 이사야 66:1-2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 없는 성전 비판

사도행전 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66:1-2 ¹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²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6. 인간의 사역과 그 한계성



당시 목회 사역의 효력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한쪽은 사역자의 위엄을 지나치게 높였다. 다른 쪽은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두 종류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 풀린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이 설교를 쓰시고 거기에 성령을 결합하시는 구절들이다. 사도들이 열매를 맺고,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둘째, 하나님이 외적 수단과 자신을 구별하시는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믿음의 시작과 전 과정이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말한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따라서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 공로를 자기 몫으로 돌리는 것은 망령되다. 그러나 목사의 가르침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은 실제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이 방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1. 사역을 과장하는 쪽과 깎아내리는 쪽 모두 잘못이다
2. 하나님은 설교에 성령을 결합하신다
3. 열매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다
4.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주인이 아니다
5. 온유하게 들으면 실제로 유익을 얻는다

말라기 4:5-6 · 누가복음 1:17

엘리야(세레 요한)의 사역이 마음을 돌이킨다. 사람의 사역에 효력이 있다

말라기 4:5-6 ⁵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⁶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15:16

사도들을 보내 열매 맺게 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23

썩지 않을 씨인 말씀으로 거듭난다.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 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4:15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9:2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친 증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후서 3:6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4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을 두려움으로 하여

갈라디아서 3:2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고린도전서 3:9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5 · 골로새서 1:29

바울의 수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매 맺는다

데살로니가전서 3: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골로새서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갈라디아서 2:8

베드로와 바울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7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시적 교회: 그 구성원과 표지. 7-9

7.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 뜻으로 쓴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는 교회다. 양자로 입양되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만 속하며, 세상 처음부터의 모든 택자를 포함한다. 둘째는 땅 위에 흩어져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무리다. 이들은 세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으로 교리와 사랑의 하나 됨을 증언하며, 말씀 안에서 일치하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말씀 사역을 지킨다. 이 보이는 교회에는 이름뿐인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 야심 많은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행실이 더러운 사람도 있다. 이들이 남아 있는 것은 죄를 입증할 수 없거나 권징이 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고, 보이는 교회는 존중하며 교제를 지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1.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의 모든 택자
2. 보이는 교회: 고백하고 세례·성찬에 참여하는 무리
3. 보이는 교회에는 위선자가 섞여 있다
4. 권징이 완벽하지 않아 섞임은 불가피하다
5. 보이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제를 지켜라

8. 인간의 판단의 한계와 하나님의 배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다. 일상에서도 그것이

있고 많은 늑대가 안에 있다고 말한다. 누가 끝까지 견딜지는 하나님만 보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셨다. 완전한 확신 대신 판단의 기준을 주신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면 된다.

1.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2. 겉보기와 결말이 뒤바뀌는 일이 흔하다
3. 끝까지 견딜 자는 하나님만 보신다
4. 대신 하나님은 판단 기준을 주셨다
5. 고백·삶·성례 참여로 지체를 인정한다

디모데후서 2:19

자기 백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13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끝은 하나님만 보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9. 교회의 표지

이제 교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는 약속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은 단계를 나누어 설명한다. 보편 교회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한 진리와 한 신앙으로 묶인 무리다. 각 지역의 개별 교회도 그 아래 속해 교회라는 이름과 권위를 정당하게 갖는다. 개인은 신앙을 고백하면 교회에 속한 것으로

공동체 전체를 판단할 때는 말씀 사역이 있고 존중되며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를 본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의심 없이 교회다.

1. 두 표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2. 근거는 “두세 사람” 약속이다
3. 보편 교회 아래 지역 교회도 정당한 교회다
4. 개인은 출교 전까지 교회에 속한다
5. 공동체는 두 표지로 판단한다

에베소서 2:20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곧 말씀 위에 선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가 계신다. 표지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근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이런 표지가 있는 한 아무리 다른 결점들이 있더라도 거기서 분리해서는 안됨. 10-16

10. 무시해서는 안 될 교회의 권위

말씀 선포와 성례라는 표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효과가 있다. 복음을 경외하며 듣고 성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곳이라면, 누구도 그 교회의 권위와 경고와 징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 교회를 버리고 하나 됨을 깨는 것은 더욱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교만하게 떠나는 자를 반역자이자 배도자로 보신다. 교회의 권위가 침해받는 것을 자신의 권위가 침해받는 것으로 여기신다.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부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 지키는 자라는 뜻이다. 교회는

1. 두 표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2. 표지가 있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3. 교만한 분리는 반역이자 배도다
4.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다

디모데전서 3:15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에베소서 5:27

교회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신부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5:23-32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분리는 그 혼인을 깨는 불충이다

²³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²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²⁵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²⁶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²⁷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²⁸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11. 교회의 표지의 중요성

이 두 표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사탄이 무엇보다 이 표지들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표지를 지워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없애기도 하고, 표지를 우습게 보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사탄의 계략 때문에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몇 세대 동안 사라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표지가 있는데도 떠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유혹이다. 반대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모든 모임은 이 기준으로 시험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라고 자칭한다면 그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칼빈은 경솔한 분리와 이름에 속는 것을 둘 다 피하라고 말한다.

1. 사탄은 표지를 지우거나 우습게 보게 한다
2. 말씀 선포가 몇 세대 동안 사라진 적이 있다
3. 표지가 있는데 떠나고 싶다면 그것은 유혹이다
4. '교회'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표지로 시험하라
5. 경솔한 분리도, 이름에 속는 것도 피하라

에베소서 4:12

말씀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 세움도 무너진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 교회의 표지를 근거로 부당한 분리를 방지하여야 함

소속한 말씀 사역과 성례가 있으면 그 모임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충분한 분리를 피한다

마찬가지다. 교리 조항이 모두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휼로 받는다' 같은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이다. 반면 죽은 영혼이 곧장 하늘로 가는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만 말할지 같은 문제는 교회를 가를 이유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무지하므로 이런 차이를 용납하지 않으면 남은 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작은 오류라도 아첨하며 덮자는 것은 아니다. 각 지체는 받은 은혜만큼 질서 있게 교정할 의무가 있다. 교회를 떠나지도 말고,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지도 말아야 한다.

1. 두 표지가 있으면 교회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2. 교리에는 핵심 조항과 비본질적 조항이 있다
3. 비본질적 문제의 차이는 분리 사유가 아니다
4. 작은 오류도 덮지 말고 질서 있게 고쳐라
5. 떠나지도, 평화를 깨지도 말라

빌립보서 3:15

생각이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비본질적 차이는 분열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고린도전서 14:30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질서 있게 말하라. 교정은 질서 안에서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13. 도덕적인 결점도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삶의 결점을 참는 일에서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이곳이 미끄러운 내리막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완전히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인간의 약함이 보이는 사람과는 모두 관계를 끊는 무리가 늘 있었다. 고대의 카타리파와 도나투스파, 그리고 당시 일부

단정한다. 칼빈은 그 비판이 정당하며 자신들의 방종과 게으름은 핑계할 수 없다고 먼저 인정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너그러움을 버리고 가혹해지는 죄를 짓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온갖 고기가 든 그물, 가라지가 섞인 밭,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타작마당에 비유하셨다. 심판 날까지 섞여 있다고 하셨으니, 흠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수고다.

1. 삶의 결점을 두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2. 완전주의 분파: 카타리파·도나투스파·일부 재세례파
3. 의의 열심도 가혹함으로 변하면 죄다
4. 교인들의 방종은 핑계할 수 없다(칼빈의 자기비판)
5. 그물·가라지·타작마당: 심판 날까지 섞여 있다

에베소서 5:26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 교회는 거룩하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3:47-50

온갖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선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

⁴⁷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⁴⁸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⁴⁹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⁵⁰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24-30

가라지 비유. 추수 때까지 뽑지 않는다

²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²⁵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²⁶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²⁷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²⁹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마태복음 3:12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4.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예

반대자들은 악이 이렇게 퍼진 상황은 참을 수 없다고 외친다. 칼빈은 바울의 태도로 답한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전체가 오염되어 있었다. 분쟁, 파당, 질투, 소송과 탐욕이 있었고, 이방인도 꺼리는 음행이 묵인되었다. 바울의 이름이 모욕당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까지 있었으며,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 야심을 위해 쓰였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과 갈라서거나 출교를 선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렀다.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 부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왜곡하던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은 '교회'라고 불렀다. 그 십분의 일의 악도 없는 모임에서 누가 감히 교회라는 이름을 빼앗겠느냐고 칼빈은 묻는다.

1. 고린도 교회는 도덕·교리 모두 심하게 부패했다
2.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
3. 이유는 말씀과 성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4. 갈라디아 교회도 교회로 인정했다
5. 그보다 나은 교회를 버릴 권리는 없다

고린도전서 1:2

바울이 부패한 고린도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1 · 고린도전서 3:3

분쟁과 파당

고린도전서 1: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5:1

이방인도 꺼리는 음행이 묵인됨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6:7

신자끼리의 소송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9:1-3

바울의 사도직이 의심받고 모욕당함

¹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²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³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전서 15:12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교리적 부패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3:5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 야심을 위해 쓰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1:2

복음을 왜곡하던 갈라디아도 '교회'로 부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5. 악인과의 교제

반대자들은 다시 반론을 편다. 바울이 음행자를 용납한 고린도를 책망했고, 그런 사람과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찬은 더더욱 함께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칼빈은 악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큰 불경이고, 질서가 잘 잡힌 교회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목사가 소홀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잘못이며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가 의무에 게으르다고 해서 개인이 곧바로 분리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악인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피하는 것과 그를 미워해 교회의 교제를 끊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바울은 성찬 전에 남을 살피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지 ‘남의 죄’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를 받고 누구를 거부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정당한 질서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1. 악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잘못이다
2. 그래도 개인에게 분리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3. 개인적 친분 피하기와 교회 교제 끊기는 다르다

고린도전서 5:2

음행자를 용납한 고린도를 책망함. 반대자들의 근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5:11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 반대자들의 근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11:28

각자 자기를 살피라. 남을 살피라는 명령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29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남의 죄로 내가 정죄되지 않는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16.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거짓된 동기



선한 사람도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태도는 대개 참된 거룩보다 교만과 거룩에 대한 착각에서 나온다. 분리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동기가 대부분이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길게 인용한다. 권징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아니라 해가 된다. 분열주의자들은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을 감추려고 지나친 엄격함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경건한

보이는 거룩한 사람이 많다. 병들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자기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사람이 많다.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악인 때문에 오염될까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교회를 판단하는 데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무한히 무겁다.

1. 지나친 까다로움은 대개 교만에서 나온다
2. 권징도 하나 됨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3. 고칠 것은 긍휼로, 못 고칠 것은 인내로
4.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다
5.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라. 권징의 전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태복음 13:40 · 마태복음 3:12 · 누가복음 3:17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의 일이다

마태복음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의 불완전한 거룩은 분리의 구실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죄 사함을 시행할 기회가 됨.
17-22

반대자들은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따진다.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완전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게 되고, 결국 남은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흠 없이 세우려고 자신을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날마다 주름을 펴고 얼룩을 지우고 계신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할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예언도 교인 모두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못한 정결함을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뜻이다. 거룩의 증거가 거의 안 보이는 때에도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끊긴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 시온 선택, 해와 달의 질서에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1. 거룩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교회가 남지 않는다
2. 교회의 거룩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3. 주님이 날마다 주름과 얼룩을 지우신다
4. 예언의 거룩은 은혜로 덮어 주시는 정결함이다
5. 교회는 역사에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에베소서 5:25-27

그리스도가 교회를 흠 없이 세우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의 목표와 과정

²⁵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²⁶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²⁷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엘 3:17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할 거룩한 예루살렘. 오해하기 쉬운 예언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사야 35:8 · 이사야 52:1

이사야 35: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52: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로마서 9:23

하나님이 부패한 인류 가운데서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신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시편 89:3-4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맹세. 교회가 늘 존재한다는 근거

³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132:13-14

시온을 영원히 쉴 곳으로 택하셨다

¹³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¹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으로다

예레미야 31:35-36

해와 달의 질서처럼 이스라엘도 끊어지지 않는다

³⁵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³⁶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18. 선지자들의 모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부패를 처절하게 묘사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할 정도였다. 신앙은 멸시받고 더럽혀졌으며, 도둑질, 사기, 살인이 흔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새 교회를 세우거나 따로 제단을 쌓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두시고 예배 의식을 정하셨으므로, 악인들 가운데서도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 의식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백 번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하나 됨을 지키려는 열심이 그들을 분리에서 막아 주었다. 거의 모든 사람의 큰 악을 보면서도 떠나지 않은 선지자들에 비하면, 교인들의 도덕성이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떠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1.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은 극도로 부패했다
2. 그래도 선지자들은 새 교회나 제단을 만들지 않았다
3.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예배가 그곳에 있었다
4. 하나 됨을 지키려는 열심이 분리를 막았다
5. 나의 도덕 기준을 분리의 잣대로 삼지 말라

이사야 1:10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 그만큼 부패해도 선지자는 떠나지 않았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9.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의 불경과 온갖 방탕이 퍼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같은 성전에서 같은 의식에 참여했다. 깨끗한 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있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지자와 사도의 예로 부족하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권위에는 굴복해야 한다. 칼빈은 키프리아누스를 인용한다. 교회에 가라지가 있어도 떠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알곡이 되려고 힘써야 한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은 주님께만 속하고, 쪽정이를 가려내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교만이다. 칼빈은 두 원칙으로 정리한다. 첫째, 말씀과 성례가 있는 교회의 외적 교제를 마음대로 깨는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악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ی 정하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집례자가 부정하다고 성례가 경건한 사람에게 덜 순결하거나 덜 유익해지지도 않는다.

1. 예수님과 사도들도 같은 성전 예배에 참여했다
2. 깨끗한 양심은 악인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3. 쪽정이를 가려내는 일은 주님만의 일이다
4. 표지가 있는 교회의 교제를 깨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
5. 성례의 효력은 집례자의 깨끗함에 달려 있지 않다

시편 2:9 · 요한계시록 2:27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분은 주님이다(키프리아누스 인용 속)

시편 2: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2: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3:12 · 누가복음 3:17

쪽정이를 가려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마태복음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마태복음 13:38-41

가라지를 거두는 것은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다. 사람의 몫이 아니다

-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20. 죄 사함과 교회

반대자들은 작은 흠만 있어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른 교사들이 “평생 죄의 짐을 지고 탄식하며 주님의 용서로 피하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완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화를 낸다. 칼빈은 완전을 향해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땅의 경주 중에 이미 완전하다고 자신하는 것은 마귀가 심은 생각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죄 사함을 고백한다. 이사야가 말하듯 죄 사함은 그 성의 시민, 곧 교회의 가족에게 주어진다. 죄 사함 없이도 교회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긍휼을 약속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죄 사함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세례라는 표로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먼저 씻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1. 이 땅에서 완전하다고 자신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2. 사도신경의 순서: 교회 다음에 죄 사함
3. 죄 사함은 교회 가족에게 약속되었다
4. 죄 사함은 교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5. 세례는 씻김으로 가족이 됨을 보여 준다

이사야 33:14-24

그 성의 거주민이 죄 사함을 받는다. 교회와 죄 사함의 연결

¹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어져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¹⁵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¹⁶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¹⁷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¹⁸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¹⁹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

호세아 2:18-20

하나님이 긍휼로 백성에게 장가드신다. 화목이 언약의 시작이다

¹⁸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¹⁹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²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레미야 33:8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며 모든 죄를 사하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 사함은 우리에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

21. 교회의 지체들에게 임하는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은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교회에 받아들이실 뿐 아니라, 같은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붙들어 두신다. 용서가 한 번뿐이라면 곧 쓸모없어질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평생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에게 특히 이 은혜를 약속하시고, 날마다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평생 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는 끊임없는 용서로 지탱되지 않으면 한순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1. 죄 사함은 들어갈 때도, 머무를 때도 필요하다
2. 용서가 한 번뿐이라면 소용이 없다
3. 날마다 화목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다
4. 끊임없는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교회에 못 있다
5. 용서받았고, 날마다 용서받는다

22.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은 교회에 '열쇠'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처음 회심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자들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다. 바울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사역자에게 맡겨졌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한다고 말한다. 장로와 감독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복음의 용서의 약속으로 양심을 붙들어 줄 때, 우리 죄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 계속 용서받는다. 약한 사람이 많아서 개인적인 위로도 필요하다.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며 가르친 것도 그 예다. 칼빈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아무리 거룩한 신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둘째, 이 은혜는 교회에 속해 있어서 교회와의 교제 밖에서는 누릴 수 없다. 셋째, 이 은혜는 목사의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 주어지며, 열쇠의 권세는 주로

1. 열쇠는 신자들 가운데서 계속 쓰이는 권세다
2. 사역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3. 공적 설교와 개인적 위로 모두 필요하다
4. 죄 사함은 교회와의 교제 안에서 누린다
5. 열쇠는 주로 복음 선포와 성례로 행사된다

마태복음 16:19 · 마태복음 18:18

매고 푸는 열쇠의 권세를 주심

마태복음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20:23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18 · 고린도후서 5:20

화목의 직분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지속적인 권면

고린도후서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행전 20:20-21

²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²¹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교회 내에서 허물을 용서한 사실을 보여 주는 실례들. 23-29

23. 신자는 언제나 죄 사함을 구해야 함

옛날 노바티아누스파와 당시 일부 재세례파는 세례받은 사람이 천사처럼 순결한 새
삶으로 거듭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세례 뒤에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에 맡겨 버렸다. 처음 거듭날 때 받은 용서 외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칼빈은
이 생각이 교회에서 '유일한 구원의 닻'을 빼앗는다고 본다. 첫 번째 반박은
주기도문이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빛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실 것만 구하라고 하시니, 이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들 자신도 이
기도를 하면서 빛진 자임을 고백하는 셈이다. 또 주님은 형제를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자비를 닮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하신다.

1. 노바티아누스파·일부 재세례파: 세례 후 죄는 용서 없음
2. 칼빈: 그것은 구원의 닻을 빼앗는 주장이다
3. 주기도문은 날마다 용서를 구하게 한다
4. 주님은 주실 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5.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주님의 자비를 반영한다

마태복음 6:12

날마다 빛(죄)의 용서를 구하라. 신자에게도 지속적인 용서가 있다는 핵심 근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18:21-22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4. 구약 시대의 범죄한 신자들에게 베푸신 긍휼: 율법서의 증거

교회의 '갓난아기' 시절인 족장 시대를 보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넘겼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지나친 복수를 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파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왕이었는데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용서받았다. 율법과 선지서에는 이런 긍휼의 약속이 셀 수 없이 많다. 모세도 배도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했다.

1.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 음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다
2. 르우벤과 유다의 성적 범죄도 있었다
3. 그래도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4. 거듭난 다윗의 간음과 살인도 용서받았다
5. 모세: 배도했다 돌아오면 다시 모으신다

창세기 37:18 · 창세기 37:28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넘긴 형들

창세기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창세기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세기 35:22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세기 38:16

유다와 며느리 다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사무엘하 11:4 · 사무엘하 11:15

다윗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

사무엘하 11: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2:13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³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⁴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25. 구약 시대의 범죄한 신자들에게 베푸신 긍휼: 선지자들의 증거

선지서에는 온갖 죄로 얼룩진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약속이 가득하다. 가장 무거운 죄인 배도는 하나님과 교회의 이혼으로 불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덮는다. 예레미야는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도 남편이 다시 받겠느냐고 묻고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신다고 전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백성이 포로지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 율법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 백성이 계속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1. 배도라는 '이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덮는다
2. 예레미야: 음행한 아내 같은 백성도 “돌아오라”
3.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4. 솔로몬: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5. 매일 제사는 계속되는 죄를 위한 처방이다

예레미야 3:1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의 비유. 배도의 무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8:23 · 에스겔 18:32 · 에스겔 33:11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

에스겔 18:2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3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33: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열왕기상 8:46-50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

⁴⁶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⁴⁷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⁴⁸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⁴⁹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⁵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³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⁴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⁵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빵아 낸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⁶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⁷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⁸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26. 신약 시대의 범직한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가 충만해졌는데, 그 때문에 구약의 용서가 사라졌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러 오신 셈이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나타났고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너그러움은 끊긴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 예가 있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경고를 듣고도 저주까지 하며 세 번 부인했지만 용서받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면서도 형제로 권하라고 했다. 마술사 시몬에게도 베드로는 기도하면 용서받을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1. 그리스도 이후 용서는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졌다
2. 용서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멸하러 오신 셈이 된다
3. 베드로의 세 번 부인도 용서받았다
4. 징계받는 사람도 형제로 권면한다
5. 마술사 시몬에게도 소망이 열려 있었다

디도서 3:4 · 디모데후서 1:9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남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18-20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짐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¹⁹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²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태복음 10:33 · 마가복음 8:38

베드로가 들은 엄중한 경고

마태복음 10: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26:74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함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 22:32 · 요한복음 21:15-17

베드로를 위한 기도와 회보 요서의 증거

누가복음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한복음 21:15-17 ¹⁵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¹⁶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¹⁷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6 · 데살로니가후서 3:14-15

징계하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권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14-15 ¹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¹⁵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사도행전 8:22

시몬에게도 기도하여 용서받으라고 권함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교회 전체가 한동안 가증한 죄에 사로잡혔을 때도 바울은 저주하지 않고 자비로 이끌었다.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은 가볍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도 악행이 가득했다. 하지만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바울은 음행과 방탕에 빠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하나님은 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이 법을 어기면 매로 벌하시되 인자하심은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다. 사도신경의 순서도 같은 것을 가르친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죄 사함이 덧붙여진다.

1. 갈라디아와 고린도는 심하게 범죄한 교회였다
2. 그래도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3. 바울은 저주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다
4. 매로 벌하시되 인자하심은 거두지 않으신다
5. 사도신경: 교회 다음에 죄 사함

갈라디아서 1:6 · 갈라디아서 3:1 · 갈라디아서 4:9

갈라디아 교회의 무거운 잘못

갈라디아서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3: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4: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고린도후서 12:21

음행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손이 법을 어기면 벌하시되 인자하심은 거두지 않으신다. 영원한 언약

³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³¹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³²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³³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28. 하나님의 긍휼은 자의로 범한 죄도 용서함

노바티아누스의 오류가 성경에 비추어 드러나자, 조금 더 사려 깊은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었다. 모든 죄가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지은 죄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는 셈이 된다. 칼빈은 율법이 모르고 지은 죄의 제사와 알고 지은 죄의 제사를 따로 정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짐승의 제사로도 고의적인 죄를 속하게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성도의 고의적인 죄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예를 든다. 율법을 잘 알고 날마다 간음자와 살인자를 재판한 다윗이 그 죄를 몰랐겠는가? 족장들이 형제 살해를 옳다고 여겼겠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과 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겠는가?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부인이 죄인 줄 몰랐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악의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1. 수정된 주장: 고의로 지은 죄만 용서 없다
2. 율법은 고의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도 정했다
3. 그리스도의 희생은 고의적인 죄에도 충분하다
4. 다윗·족장·고린도·베드로는 다 알고 지었다
5.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막지 말라

레위기 6:1-7

알면서 지은 죄(속임·거짓 맹세 등)를 위한 속건제

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우이 막기 못거이나 전답묵을 솥이거나 도둑직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⁴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⁵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⁶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

레위기 4:1-35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한 속죄제. 둘을 따로 정하셨다

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³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⁴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⁵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⁶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

사무엘하 11:1-27

율법을 알던 다윗의 고의적인 죄

¹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²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³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⁴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⁵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⁶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

창세기 37:18

형제 살해 음모.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고린도전서 5:1-13

고린도의 음행. 알면서 지은 죄

¹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²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³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⁵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⁶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마태복음 26:74

경고받고도 부인한 베드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29. 고대 교회의 실례

반대자들은 고대 교부들을 내세울 수 있다. 교부들은 날마다 용서받는 죄를 육체의

넘어진 사람을 절망시키려 했거나,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작다고 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자가 의심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화내고, 욕하는 등 온갖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가벼운 잘못'이라는 말은 교회에 알려져 큰 혼란을 일으키는 공적 범죄와 구분하려는 표현이었다. 공적 범죄자에게 사면을 어렵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려워하신다고 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솔하게 죄짓지 않게 하려는 교육적 조치였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은 더 너그럽다. 징계받는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가르친다. 칼빈은 이 점을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다고 말한다.

1. 교부들의 '가벼운 잘못'은 공적 범죄와 구분하려는 말
2. 일상의 죄를 하찮게 본 것이 아니다
3. 엄격한 공적 회개는 교육적 조치였다
4. 하나님이 용서를 어려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5. 성경은 더 너그럽다: 지나친 근심에 빠지게 말라

고린도후서 2:7

징계받은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빠지지 않게 용서하고 위로하라. 교부들의 엄격함보다 너그러운 성경의 기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해와 반론

용어

가시적(보이는) 교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 위선자도 섞여 있다.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모임으로, 하나님 눈에만 보인다.

공교회(보편 교회)

'catholic'의 번역으로 '온 세상에 하나뿐인 교회'라는 뜻이며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파 이름이 아니다.

성도의 교통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관계를 말한다.

교회의 표지

참 교회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칼빈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두 가지를 든다.

성례

그리스도가 정하신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로, 여기서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킨다.

열쇠의 권세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죄를 매고 푸는' 권세로, 칼빈은 주로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 행사된다고 본다.

권징·출교

권징은 교회가 잘못된 교인을 바로잡는 치리이고, 출교는 그 가장 무거운 단계로 교회의 교제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맞추심(수용)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수준에 맞추어 사람과 눈에 보이는 수단을 통해 다가오시는 방식이다.

노바티아누스파·도나투스파

3세기와 4세기 무렵의 엄격주의 분파로, 각각 '배교자 재수용 거부'와 '죄 있는 성직자의 성례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맞추어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고, 평생 그 학교에서 배우게 하신다.
- 누가 택자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말씀 선포와 성례라는 표지로 보이는 교회를 알아본다.
- 표지가 있는 교회라면 도덕과 교리의 결점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 석임은 심판 날까지 계속된다.
- 교회의 거룩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들어갈 때도 머무를 때도 죄 사함이 있다.
- 세례 뒤의 죄,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를 막는 엄격주의는 성경과 어긋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